

치열한 경쟁의 21세기, 지속적 연구개발 필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제 36회 무역의 날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임동준 삼민화학공업(주) 대표이사를 만나 2000년을 맞는 각오와 함께 앞으로 우리나라의 포장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왔다.

임 동 준 / 삼민화학공업(주)대표이사



● 포장업계에 몸담게 된 동기는?

1967년말 합성수지 원료를 취급하는 일을 하고 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임동기, 김상기씨 등과 1968년초에 삼민화학공업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엔 제약용 은박포장제품을 제약사에 납품하였으나 기술 부족으로 합지한 은박과 종이 가 분리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숙성실이 없었고 숙성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라미네이팅만 하다보니 그라비아 인쇄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나라 인쇄 원조라고 할수 있는 삼본그라비아를 창업 3년 만에 인수해 그라비아 인쇄를 시작했습니다. 인쇄시설이 갖추 어지면서 제약포장에서 제과, 식품쪽의 포장재 생

산도 시작했습니다.

68년 100평 정도의 협소한 공장에서 72년 영업확장을 통해 1천평의 성수동 공장을 조성, 이전 하였고 78년 부평공장 신축에 이어 85년 안산 반월공단에 4천평의 반월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성수동 공장을 이전하였습니다. 인쇄 및 라미네이팅 시설을 설비하였고 97년에는 최신 필름기와 증착기를 부설하였습니다. 또한 1990년에는 동성실업을 설립하여 해태제과와 삼민화학의 물량을 소화 하고 있습니다.

● 500만불 수출탑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소 감은?

94년 100만불 수출탑 수상 후 내수에 더욱 충실, 수출에 전력하지 못하다가 IMF 이후 국내 산업의 침체로 해외 마케팅 및 영업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99년도에 500만불 수출탑을 받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이를 밑거름으로 더욱 성실하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대통령표창을 받아 큰 영광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가 있도록 어려울 때 하나로 똘똘 뭉쳐 모두가 노력해 지금의 이 자리가 있게한 전 직원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 수출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92년 동남아에 처음 수출을 시작하여 지금은 일본이나 미국에까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 제품 및 필름을 수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구매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품질이 가격보다 우선순위에 있어 품질만 합격하면 가격은 괜찮습니다. 동남아 및 중국은 가격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담당 실무자들과의 문제가 없혀 있기도 합니다. 낮은 인건비 및 싼 원자재를 가지고 인도네시아나 태국의 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환율의 영향으로 수출에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수출시 관세혜택을 받고 있어 우리 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수출을 증대시킬수 있었던 이유는?

지속적인 품질향상에 투자를 했고 산학합동연구 등 품질 및 제품개발에 노력한 결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매자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줘 지속적인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처럼 품질검사가 까다로운 곳에도 납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각 나라별 특징을 분석하고 직·간접 판매망을 구축하였고 이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정립하여 서로간에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전시회에 참가하여 전시 및 정보를 얻는데 게을리하지 않고 고객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 수출증대의 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가격보다는 품질우선에 역점을 뒀 구매자의 신

뢰를 얻으면서 고객이 요구하는 샘플을 신속하게 제작, 공급함과 동시에 우리회사에서 추천하는 샘플도 동시에 제공하여 구매자의 생산성, 원가절감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5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지만 올해에는 1천만불 수출탑을 꼭 수상하겠습니다.

● 2000년대 포장산업을 전망하면?

우리나라 수출, 수입 물량이 2천8억불정도입니다. 그것들 모두가 가장 기본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21세기에는 좀더 발전된 포장문화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포장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인지 사람들이 환경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어느정도의 여유가 생기다보니 환경과 관련된 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분해성 필름을 만든다거나 다이옥신이 검출되지 않도록 꾸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할 때입니다. 언제까지나 필름에서 공해물질이 나오니 사용을 금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대인의 식생활 변화로 인해 레토르트 산업의 발전전망이 밝아 보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두드러지고 식생활이 인스턴트화되면서 모두들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고 장기 보존이 가능한 식품위주의 구매패턴이 형성될 것입니다. 레토르트 제품은 장기보존과 짧은 시간에 식사가 가능하거든요. 21세기 기업은 연구 개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포장산업이 더 발전하여 꽃을 활짝 피울건지는 기업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

이선경 기자